

大學의 社會奉仕 事例 (르포)*

德成女大 平生教育院

계속 생각하고 공부하는 풍토 조성 위해

德成女大 平生教育院은 우리나라 여성들의 知的·文化的 수준을 높이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1984년 8월에 설립되었다. 이 평생교육원의 教育目的은 女性들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교육의 수준을 높이며, 아울러 여성들에게 계속 생각하며 학습하는 생활을 하도록 하는 '學習社會(learning society)'의 풍토 조성에 있다. 즉 사회의 일반 문화센터 강좌와는 달리 大學을 公開함으로써 大學教育의 機會를 넓혀 우리나라 一般 女性들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大學講座를 그대로 開放

이 교육원은 ① 지원자의 학력 및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② 대학 강의를 듣고자 희망하는 일반 여성들에게 덕성여자대학의 강좌를

개방하고, ③ 일반 대학의 수업료에 비하여 수강료가 매우 저렴하며, ④ 모든 강의 수준과 교수진은 덕성여대의 정규과정과 동일하고, ⑤ 짧은 시간에 대학과정을 공부할 수 있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대학의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大學綜合敎養課程 I, II의 敎養科目과 專攻課程 및 수강생들의 요구에 따라 선정된 一般選擇科目 등으로 구성되고, 수강생들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과정이나 과목을 수강생 자신이 자유로이 선택하여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강좌 및 과정은 대학의 강의 시간과 똑같이 주·야간 공히 1학기 동안에 16주를 강의한다. 교수진은 덕성여대 전임 교수들에 의한 강의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저명한 교수를 초빙하고 있다. 수강생의 成就感 鼓吹를 위해 모든 강좌 및 과정이 끝나는 매학기말에는 수료식을 거행하여 출석률 80% 이상인 수강생에게 履修證書를 수여하고 있다. 현재는 각 과정 및 과목에 대한 이수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몇 과목 이상을 수

* 대학은 사회 발전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그 봉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많은 사회봉사 사례 가운데 여기서는 제한된 지면 관계상 부득이 세 기관만을 소개하게 되었다. 취재 및 기사 작성은 교육자료부 鄭裕錫, 李珍珠가 담당하였다.

강한 원생에게 이수증을 발급한 것인가의 규정 등은 앞으로 계속적인 연구 과제가 될 것 같다.

개인별 能力差에 따른 受講

평생교육원은 수강생 개개인의 능력 차이에 따라 각 과정을 수강하게끔 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내용상의 난이도는 분명하지 않을 지라도 일반적 수준에 맞추어 설치된 각 과정 및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종합교양과정 I, II가 있다. 이것은 여성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12개의 대학 교양 과목을 과정 I 과 과정 II로 각각 6 과목씩으로 나누어 대학 강의와 같은 수준 및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과정 I에 개설된 과목은 철학개론(등양), 서양미술감상·한국미술감상, 여성학, 문학개론 및 감상, 서양문화사, 유아교육개론 등이다. 과정 II에는 가정관리학, 자연과학개론, 서양음악감상·국악감상, 경영학개론, 심리학개론, 철학개론(서양) 등이 개설되어 있다. 과정 I, II에 개설된 과목 중에는 유아교육개론, 문학개론 및 감상, 서양문화사, 심리학개론, 가정관리학, 경영학개론 등 6개의 전공 기초 과목이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계속해서 전공과정을 듣고자 하는 수강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강의는 각 과정 1학기(16주간), 매주 3일씩, 1일 2과목(과목당 2교시, 80분 수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수강 방법은 과정 I 또는 과정 II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고, 주간 및 야간으로 구분되어 있다. 아울러 본인의 편의나 사정에 따라 원하는 과목(한 과목 또는 두 과목)만을 선택하여 개별 과목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독서토의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이는 덕성여대가 교양교육을 위해 개발한 특수 프로그램이라 하는데, 담당 교수와 20명 이내의 수강생으로 클래스를 이루어 미리 정해진 독서 프로그램에 따라 수강생들이 책을 읽고 수업 시간에 교수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수강생들로 하여금 지식의 증대뿐만 아니라 문제 파악 능력, 문제 분석 능력, 발표 능력, 논리적 사고 능력 및 민주적 대화 진행 능력 등을 향상할 수 있게끔 도

움을 주고 있다. 프로그램은 문학, 철학 및 사회학 등 3개 분야로 구성된다. 강의는 각 분야 1학기(16주간), 매주 1일, 2교시(80분)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전공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교양 과정 또는 전공 기초 과목을 이수했거나 대학의 전공 분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여성들에게 공개되는 것으로서 한 학기 과정과 두 학기 과정을 두고 있다. 한 학기 과정에는 실내장식, 사회학, 교육학 전공 과정, 두 학기 과정에는 심리학, 경영학, 사학, 문학, 가정학, 유아교육학 전공 과정 등이 설치되어 있다. 각 전공 분야의 과목들은 그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전공 과목을 설강하여 이 과목들을 이수하는 경우, 그 분야를 대학에서 전공한 것과 다름 없는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끔 했다 한다. 특히 유아교육과 실내장식 전공 과정은 일선에서 직접 활동하는 수강생들에게 업무상 실제적으로 필요한 강의를 해주고 있어 再教育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실내장식 전공 과정을 제외한 각 전공 과정의 강의는 1학기(16주간), 매주 2일, 1일 2과목, 과목당 80분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강 방법은 전공 과정 중에서 원하는 과정을 신청하며, 주간 및 야간 중에서 선택한다. 또한 본인 희망에 따라 각 전공 과정 중에서 한 과목 또는 두 과목만을 신청할 수도 있게 했다.

넷째, 일반선택과목을 두고 있다. 이것은 앞서 소개한 대학종합교양과정 I, II 및 전공 과정 중에서 어느 과목이든 원하는 과목만을 개별로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게끔 했고, 아울러 덕성여대 일반선택과목 중에서 수강생들의 요구가 높은 과목들을 일반선택과목으로 개방한 것이다. 강의는 각 과목 1학기(16주간), 매주 1일, 1일 2교시(80분) 수업으로 구성된다. 수강 방법은 희망하는 과목을 원하는 수만큼 선택하여

〈표 1〉 덕성여대 평생교육원 현황

구 분	'84 가을	'85 봄	'85 가을	'86 봄	'86 가을	'87 봄
인 원 수	300	800	1,600	2,500	2,800	3,200
강 과 수	60	70	88	102	104	126
강의실수	5	6	8	9	9	11

주간 또는 야간에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설치된 과정 및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인원수 등 이 교육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뒤의 <표 1>과 같다.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편 '87. 3. 30~4. 3까지 등 교육원에서 '다음 학기 프로그램 決定의 基礎資料'로 사용하기 위해 '87 봄학기 수강생 758명(주간 333, 야간 425)을 대상으로 각 반별로 수업중 10분간 실시한 設問調査에 따르면, 등 교육원에 참여하여 수강하게 된 動機로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서'가 33.3%, '대학 수준의 강의를 듣고 싶어서'가 26.6%, '통학 거리가 가까워서'가 18.5%, '수강료가 적당해서'가 13.2% 등의 분포를 나타냈다. 이 조사에 의하면, 등 교육원에 참여하는 원생들의 연령 분포는 21~25세가 38.7%로 가장 높은 구성 비율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주간은 26~30세가 28.9%, 야간은 21~25세가 54.8%로서 가장 많았다. 결혼 여부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未婚이 72.1%였는데, 이 중 주간은 42.6%, 야간은 96.4%가 미혼이었다. 직업별 분포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회사원(공무원, 은행원 포함) 45.4%, 주부(자기 사업 포함) 15.6%를 나타냈다. 야간의 경우는 회사원 77%, 주부 4.9%, 주간은 회사원 5.4%, 주부 29.1%의 직업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교육원에서 수강하는 원생들의 호응도에 있어서는 평생교육원을 소개하겠다는 의향이 97.4%, 계속 수강을 원함이 78.5% 등으로 비교적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수강생들의 결석 원인 조사에 있어서는 '직장이나 가정에 바쁜 일이 생겨서'가 62%를 차지해 수강생들의 평생교육원 강의에 대한 '가벼운' 생각이 분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하면서 배우려는 의욕 심어줘

한편, 이 교육원을 통한 敎育效果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교육원 관계자는 수강하는 원생들이 '평생교육원을 거치며 무엇을 느꼈겠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했다. 즉 교육원 교육을 통해 수강생들로 하여금 정규 학

교교육 후의 교육을 통해 보람과 기쁨을 찾고, 일하면서 배우고자 하는 의욕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원의 수강 대상자들은 주부, 자녀, 회사원 등 다양한 직종에 몸 담고 있는 女性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의 정보 교환, 대인 관계의 확대 및 생활면에서의 의견 교류 등 교육 받기 이전보다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육원은 시내 중심부(鍾路區 雲泥洞)에 위치해 입지 조건이 좋고, 수강료가 저렴하며, 대학 당국이 평생교육원 건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해 주고 있으며, 등 대학 교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등의 조건을 갖추고 현재까지 약 1만여 명의 이수생을 배출했다. 또한 1990년까지 교육 플랜을 설정, 한 학기 10,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알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첫 학기 수강생 비율이 높은 반면 두번째 학기 이상을 수강하는 수강생의 비율이 낮음으로 그것을 높이는 방안, 기혼자가 전체 비율에 있어 기대 수준에 미흡함(약 27%)으로 가정 주부의 수강을 유도하는 정책, 경험 있고 노련한 전문 강사의 초빙, 대학 수준의 강의는 지속하되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유지시키는 방안, 이른 강의의 지루함을 덜고 이 교육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생활체육, 합창 등을 가미한 강의·실습의 적극 고려, 교육 기간 연장(1년 과정)의 고려, 강의 및 수업 환경 개선의 노력, 시설 및 공간의 확보 등 受講生들의 要求分析에 나타난 바와 같은 改善課題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裕>

弘益大 特設 美術敎育院

미술 문화는 大學이 先導的으로 이끌어야

弘益大 特設 美術敎育院은 1986년 9월에 우리나라 大學 가운데 美術 關係 平生敎育機關으로서는 最初로 개설되었다.

이 교육원은 현대인의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미술교육의 관심은 더욱 증대되어 일반인

의 미술교육이 박물관, 신문사 심지어 화랑 등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미술 문화의 연구와 교육에 선도적이라고 자부하는 홍익대학이 학부학생 시설외의 별도 시설을 이용해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일반 사회인들에게 정상적인 미술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民族文化의 육성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교육원은 美術一般課程, 美術專攻課程, 美術專門課程, 美術實技課程 등을 남녀 구분 없이 주·야간 동시에 개설하고 있다. 모집 방법은 입학 원서 접수시 서류 심사 및 면접을 통해 전형하는데, 학력의 제한 없이 미술에 대한 최소한의 적성 및 의욕을 평가하여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대체적으로 입학시키고 있다. 현재 모집 정원은 확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지원자의 각 과정 지원 상황에 맞추어 정원을 조정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교육은 학부학생의 시설외 별도 시설인 單獨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설은 강의실, 실기실, 시청각교육실, 회의실 기타 체육 시설 및 복지 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實技는 교수가 個別的으로 지도해

교육 기간은 1년제, 6개월제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1년 과정은 주로 미술 전반에 대한 이론을 교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이해를 돕고 있으며, 6개월 과정은 주로 실기 및 전공과정으로 미술 기초 실기의 습득 배양과 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1학기는 3월~8월, 2학기는 9월~2월로 편제되어 있다. 강의는 1週 1일 3시간이며, 1학기는 16주로 편성되어 있다. 강사진은 弘大 교수 및 사계 권위자를 초빙하여 일반 사설 미술 단체와는 달리 대학의 아카데미한 순수 미술 교수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 교육원에 설치된 교과과정 및 그 특색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일반과정이 있다. 이는 미술 전반에 대한 基礎理論에서부터 專門課程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강의 과정으로, 미술 전반에 대한 이론, 특강, 슬라이드, 비디오, 유명 미술관 및

고적지 답사 등 현지 견학 교육도 실시된다. 개설 과목으로는 동양화개론, 서양화개론, 현대조각, 미학개론, 현대회화론, 공예사 미술 감상, 현장 교육, 사진학, 공업·시각디자인, 미술특강, 실내디자인론, 환경디자인론, 미술감상 등 모두 22개로 구성되어 미술에 대한 기본 교양 및 비평, 감상, 미술 감각 등의 교양과 이해를 돕기 위해 1년 과정(2학기) 32주 단위로 '86년 9월에 개설되었다.

둘째, 미술실기과정을 갖추고 있다. 이는 수강생들이 직접 實技를 통해 미술 기초 실기에서부터 각 전공별로 自己個性과 수준에 맞추어 다양한 미술 실기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끔 '87년 3월에 개설되었다. 6개월 16주 단위로 개설된 실기과정으로는 수묵화 전공, 사군자 전공, 서예 전공, 소묘 전공, 수채화 전공, 유화 전공, 판화 전공 등이 있는데, 실기 지도는 각 실기 전공 원생 수준의 多樣性을 참작, 個別指導敎授制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교수의 지도 및 추천을 통해 作品展('87.7.6~25일 3주간 예정)을 개최하여 자신의 실력 확인과 보람을 느끼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셋째, 미술전문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유아, 아동을 위한 미술교육 관계의 교육자, 미술 교사, 학부모 및 일반인을 위해 兒童美術 전반에 대해 전문적으로 이론과 실기를 강의하고, 슬라이드, 비디오를 통한 시청각교육 및 현장 견학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아동 미술에 대한 기초 감각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치되어 이채를 띠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아동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미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호응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1년 과정(2학기) 32주 단위로 개설된 이 과정에는 유치원교사, 주부, 초등 아동 대상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과 교사 등 유아 및 아동 미술에 대한 敎育熱이 높은 분들이 다수 참여하여 아동 미술교육자로서의 전문적·지적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평소 생활에서의 미의식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한다.

넷째, 미술전공과정이 '87년 9월에 개설될 예정이다. 이는 한국·동양·서양 미술 전반에

대한 흐름과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으로서 각 시대별 미술과 그 사상의 발달 과정을 歷史的으로 개관함과 동시에 그것의 독특한 예술적 가치가 이론적으로 강의될 예정이다. 6개월 16주 과정으로 동양미술전공, 한국미술전공, 서양미술 I 전공, 서양미술 II 전공 등이 설치된다. 동 교육원 관계자에 의하면, 외국 출장의 빈도가 높고 직장에서 필요한 유관 업무에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비교적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지원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의 과정들이 끝나면 평소 성적, 기말 성적, 출석 상황 등을 종합하여 수료증이 발급되는데, 일반 사설 강습소나 문화 단체가 아닌 大學에서 배출한다는 教育的 측면에서 가급적 수여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한다. 그러나 원생들이 학교교육을 마친 지 오래된 일반 사회인이기 때문에 學業나 교육과정에 대한 계속적 홍보 및 지도가 어렵고 일일이 챙겨주어야 하는 애로를 겪고 있다. 또한 미술 학원이나 일반 문화 단체에서의 교육으로 착각하여 교직원들을 상대함에 있어서도 예의 범절을 갖추지 않고 대하는 것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遠近 각처에서 몰려와

미술교육원은 앞으로 예술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 向上과 미술 문화 교육에의 希求로 많은 호응과 관심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과정에서 수강하는 원생들도 인천, 수원, 안양, 울산, 대구, 광주, 부산 등 원근 각처에서 1주일에 1번씩 上京하여 교육 받는 열의를 보이고 있다.

이에 鼓舞 받은 교육원은 草創期의 여러 애로 사항들을 극복하고, 미술 문화 研究와 教育을 통한 社會奉仕에의 先導的 의지를 가지고 건전한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裕>

梨花女大 社會福祉館

時代的 背景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 부설 사회복지관인 梨花

女大 社會福祉館은 1956년 7월 6일 개관한 이래 30여 년 동안 지역 사회 복지 향상에 꾸준히 봉사해 오고 있다.

사회관 운동은 1880년대에 영국에서 시작되어 미국,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같은 철학과 방침으로 이 사업을 도입하게 되었다.

1920년대에 한국 사회에 있어서 아동과 여성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소외되고 억눌리고 순종만 요구 당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한국 초창기의 사회관 운동은 지역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여성 및 아동 복지 사업에 치중하면서 여성 자신들의 의식 개발, 인간교육, 지도력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

1921년에 미국 감리교 여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테화여자관이 그 시초였으며 점차적으로 인천, 대전, 부산 등 각 곳으로 확산되었다.

1950년 6·25 사변으로 대부분의 공장이 파손되고 인플레이가 심해져 생활난이 극심해졌다. 사회, 문화, 경제, 정치가 혼란했던 시대적 상황 아래 대현동, 대신동 지역 피난민들의 안식처가 되었던 본 사회관은 소규모로나마 지역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

設立 目的 및 沿革

梨花女大 사회복지관은 변천하는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응하고 지역 사회 개발에 공헌하며 사회사업학과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을 실습을 통하여 현실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연구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다. 그 연혁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956년 7월

이화여대 정문 앞 대신동 언덕에 사회복지관을 설립하여 인근 지역의 영세 청소년을 위한 교육, 상담 및 보건 사업 실시

• 1965년 3월

이화여대 서문 옆으로 이전하여 탁아 사업 - 취미반 활동 개시

• 1975년 3월

총장 직속 기구로서 산하 기구 통합

사회복지관이 현 위치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회관, 모자보건소, 유아원 등 3개 독립 기관을 단일 기구화

- 1982년 3월
이화여대 사회복지관에서 기구상 유아원이 독립
- 1987년 7월
현재 사회사업부, 지역 사회 간호사업부 밑에 아동, 청소년 가족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실습생 지도를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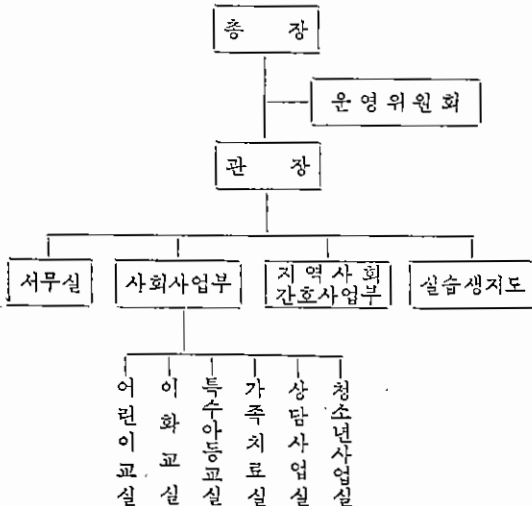
運營 方針 및 機構

사회복지관은 지역 사회 요구와 본교 자원을 연결시키며 사회사업 전공 학생들의 실습장으로 활용, 연구의 터전이 되도록 하면서 지역 사회 주민의 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운영의 기본 방침이 세워졌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운영 방침은 다음과 같이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되었다.

① 지역 사회의 주민 및 봉사 기관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 사회 복지 향상을 위한 여러 문제를 상호 협조하여 해결책을 찾으며 본관의 사업 범위 안에서 도움을 준다. 본관의 사업 범위 밖의 것일 경우 적당한 다른 기관에 의뢰한다.

② 전문적인 이론과 시행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이화여대 관계 교수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표 1〉 이화여대 사회복지관 기구표



그리고 보다 전문적인 사업을 위한 연구와 실천을 통해 같은 기능의 봉사 기관에 대해 개척하는 역할을 한다.

③ 서어비스에 따르는 비용은 대상자의 경제 능력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면서 운영한다.

④ 학생 실습 훈련으로 학생들에게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는 실습장을 제공함으로써 각 분야의 훌륭한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발전시킨다.

사회복지관의 기구는 설립 당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 개편이 있었으나 현재의 기구는 아래 〈표 1〉과 같다.

事業內容

• 프로그램 운영

1956년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30여 년간의 시대 변화와 지역 사회의 요구 및 사업장의 확장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은 크게 변화하였다.

1956년부터 10년간 주민들과 상담을 통해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으며 유치클럽, 비진학 청소년들에게 한글·한문교육을 야간에 실시하였다.

1957년부터 8년간 본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부설의 모자보건소와 협력하여 의료 치료 및 보건 관리에 힘썼다.

또한 외부 원조 기관으로부터 밀가루, 우유, 의류 등 생필품을 원조받아 구호 사업도 폈다.

1961년 4월 캐나다 USTS 및 본교 사회사업학과, 도서관학과의 협조로 30명의 열람이 가능한 도서실이 설치되어 독서 지도를 하였다.

1969년부터 5년간은 만 5세 아동 10여 명을 대상으로 귀염둥이반이라 이름지어 만나질 탁아 사업을 하였다.

1975년 현 건물로 이전하면서 529평의 넓은 공간은 지역 사회와 동교의 모든 자원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열기로 packed 있었다.

1975년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① 가족치료실, ② 상담 사업과 특수아동교실, ③ 성인교육, ④ 어린이교실, ⑤ 캐나다 기독교 아동복지회의 후원, ⑥ 지역 사회 간호사업부 등이 있다.

· 연구 사업

- ① 지역 사회 연구 조사
- ② 논집 발간
- ③ 세미나 운영

· 전문 인력 양성

- ① 자원봉사자 훈련
- ② 전문 인력 훈련
- ③ 직원 Inservice Training

改善方向

이화여대 사회복지관은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30여 년간 지역 사회 변천과 더불어 기능상 으로나 프로그램상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지역 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해왔고 앞으로도 대학 부설기관으로서의 특수성에 입각해서 보람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사회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리라 전망된다.

앞으로의 복지관 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 과 계획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 에서 추진되어질 것 같다.

- ① 대학 부설 사회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교직원 자녀를 위 한 종일 탁아사업을 확대한다.
- ② 저학년 국민학교 학생을 위한 방과 후 탁 아사업(after school day care)을 개발하 여 실시한다.
- ③ 대학 관련 노무자 자녀를 위한 무상 탁아 보호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 ④ 대학 및 동창을 중심으로 결연 사업 활동을 통해 대학 관련 노무자를 포함한 대학 인근 빈곤 지역 가정을 위한 가정 복지 서어비스 를 확대한다.
- ⑤ 대학생과 동창을 중심으로 자원 봉사자 훈 련을 실시하여 일반 사회복지 자원과의 연 결을 도모한다.
- ⑥ 일반 사회적인 복지관 기능으로, 교정 당국 과의 협조하에 문제 청소년을 위한 진단 및 치료 활동을 편다.
- ⑦ 가족치료실을 확대 육성한다. <珍> *